

이통3사, 자율주행·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선보인다

〈도심항공교통〉

SKT, UAM 기술 기업과 협업
KT, C-ITS·BSS 등 체험 가능
LGU+, 자율주행차 주차서비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0일부터 12일 사흘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SSME 2021)'에서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기술을 전시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가상 체험, 자율주행차 등 고객 체험에 나선다.

이번 전시는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물류, 자율주행 관련 3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심항공교통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해 미래 교통환경과 모빌리티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행사로 4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KT는 SSME 2021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파트너, KT'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하며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한다. KT 전시관은 ▲자율주행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IVI(In-Vehicle Infotainment) 플랫폼 3개 존으로 구성됐다.

'자율주행 플랫폼' 존은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KT의 차세대 기술



SK텔레콤 모델이 가상현실(VR)로 구현된 UAM 콘텐츠를 통해 상암동에서 코엑스까지 이동하는 가상 체험을 하는 모습. /SKT



KT 부스를 방문객이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존에서 배터리 교환 플랫폼(BSS)을 체험하고 있다. /KT



LG유플러스가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서 '자율주행차'를 선보인 모습. /LG유플러스

력을 선보여, '영상분석 솔루션'과 '정밀측위 기술'이 활용된 제주도 내비게이션 시연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실시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를 체험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이동체들의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플랫폼인 '모빌리티 메이커스'와 자율주행 로봇인 방역로봇, 호텔로봇 솔루션을 만날 수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존에서는 차세대 모빌리티 관련 B2B(기업간) 솔루션들을 시연한다. 드론택시와 같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을 관제하는 '무인 비행체 교통관리' 플랫폼을 처음 선보인다.

'IVI 플랫폼' 존은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KT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내비게이션 정보시스템 솔루션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GV70 등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차량에 최초 적용한 차량 내 '지니뮤직 스트리밍' 서비스와 KT가 국내 최초로 완성차에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차량연계 솔루션인 'AI 모빌리티 인포테인먼트'를 체험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SSME 2021 참여해 가상현실(VR) 기반의 UAM 탑승 체험을 선보인다.

'K-UAM 드림팀'인 SKT,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은 서비스·인프라·기체·연구 분야의 사업 비전과 핵심 기술력에 대해 소개하

는 공간을 마련했다.

SKT와 티맵모빌리티는 UAM 서비스 품질을 결정할 빠르고 편리한 예약 프로세스 및 탑승과 관련된 가상 탑승 체험 코너를 준비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티맵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에 접속한 뒤 경로를 검색하면 지상교통과 UAM으로 이동할 때 소요시간을 비교해 준다. 이후 얼굴인식 등 간편한 방식의 사용자 인증을 통해 예약 및 탑승 수속까지 마치면, 시뮬레이터에 올라 UAM을 타고 서울 상공을 비행하는 VR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구축 계획을 밝힌 세계 최초 UAM 이착륙장 '인프라 허브(프로젝트 N.E.S.T)'의 축소 모형을 전시한다. 한화시스템은 최

대 시속 320km/h로 안전하고 빠르게 비행하는 에어 모빌리티 기체 '버터플라이' 실물모형을 전시하고, UAM 체험을 위한 기체 내부 시뮬레이터를 마련했다.

SKT는 국내 UAM 기술 선도 기관 및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육상과 공중 교통을 연계하는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SSME 2021에서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시하고 '자율주행차' 체험공간을 운영한다.

이번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은 LG유플러스의 자율주행차가 제공하는 자율주차 서비스를 관찰할 수 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metroseoul.co.kr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한화시스템이 10일 서울 마포구 중산로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Seoul Smart Mobility Expo)'에 참가했다. /손진영 기자 son@

LG전자 '소프트 V2X', 폰으로 車 충돌 알림

사각지대·돌발상황 등 사고 예방
어린이 모드, 어린이 보행자 알림

LG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충돌 위험을 알아차리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LG전자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SSME 2021)에서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를 처음 공개했다.

이 솔루션은 차량과 보행자 사이는 물론 차량과 이륜차 간, 차량과 차량 간 충돌위험을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알려줘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별도의 전용 단말을 이용하는 기존 V2X와 달리 Soft V2X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주·정차 차량에 가려진 어린이, 큰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자전거,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 등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돌발상황은 물론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사고 예방에 유용하다. 어린이 모드는 앱 사용자들에게 주변에 어린이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스쿨존 진입, 스쿨버스 주정차 등에 대한 알림 기능도 있다.

전용 모바일앱이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이동 방향,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전송하고, 클라우드가 전달받은 정보 가운데 사용자들의 주변 정보를 선별해 다시 사용자들에게 보내주는 원리다. 앱은 클라우드로부터 받은 여러 정보를 분석해 사용자의 충돌위험을 감지한 경우 스마트폰에 화면, 소리, 진동 등으로 경고메시지를 보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보행자와 차량이 서로 부딪힐 위험에 있으면 보행자와 운전자의 스마트폰에 '차량 충돌위험', '보행자 충돌위험' 등과 같은 경고메시지를 띄

워준다. 클라우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과 연동해 차량 운행, 도로 상황, 교통 신호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보는 앱 사용자에게 전송돼 실시간 위험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모바일앱을 설치하지 않은 보행자나 차량과의 충돌위험도 감지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CCTV를 활용해서다. CCTV가 보행자와 차량을 확인해 위치, 이동 방향, 속도 등을 계산하고 해당 정보를 클라우드로 전송, 클라우드가 Soft V2X 앱 사용자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고 앱은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면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존 V2X 단말과 도로 교통 정보를 교환하던 통신시설(RSU)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스마트 RSU도 선보였다. /김재용 기자 juk@

'드론 배송' GS칼텍스, 미래형 주유소 공개

'바로 주유' 서비스 체험 가능

GS칼텍스가 미래형 주유소를 선보인다. GS칼텍스는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서울 마포구 소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미래형 주유소인 '에너지플러스 허브'를 알리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래형주유소와 드론 배송을 주제로 하는 해커톤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GS칼텍스는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에 모빌리티 인프라와 라이프 서비스가 결합된 에너지플러스 허브 전시관을 열고, 관람객들에게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GS칼텍스의 변화와 확장 의지를 알렸다.

에너지플러스 허브 전시관은 ▲브랜드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 등 3개



GS칼텍스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 전시관.

의 존(zone)으로 구성되며 'energy plus 360°'를 디자인 컨셉으로 문화비축기지의 전신인 석유비축기지의 원형 디자인을 활용해 모든 방향에서 고객의 삶에 밀접해지는 에너지플러스의 확장 의지를 담아 표현했다.

또한, 중앙에 대형 나무를 배치하는 등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유도하고, 넓게 열린 진출입 공간 구성을 통해 관람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현대차, 서울시와 도심항공교통산업 '맞손'

현대자동차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국내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손을 잡는다.

현대차는 10일 서울시와 'UAM의 성공적 실현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 UAM사업부 신재원 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UAM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한 활동 강화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UAM 이착륙장(버티포트)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한국형 UAM 로드맵 및 'K-UAM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어 현대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현대자동차그룹이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한 해외 주요 도시와 연계해 서울시가 UAM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